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 구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One-stop Portal Service for Humanities and Social Assets

노 영 희 (Younghee Noh)**

정 대 근 (Daekeun Jeong)***

곽 우 정 (Woojung Kwak)****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및 증장기 로드맵 설정에 있다. 이를 위해 기초학문자료센터 SWO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석·박사과정생 90명을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8명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자산에 대한 원스톱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원의 통합적 제공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무한정보제공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질적 검증을 거친 연구 성과물 수집 전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KRM은 인문사회자산 허브 및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넷째, 전문 연구 서비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의 측면까지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tudy is to make a development initiative for humanities and social assets one-stop portal services intended for researchers, thereby establishing long-term road map for Korean Research Memory(KRM) i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The empirical studies conducted for this purpose are as follows: SWOT analysis of KRM'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Usability test for 90 graduate students; Focus group interview for 8 experts. The results of th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KRM needs to focus on the sustainability of information provision as well as the integration of research provision. Second, KRM needs to establish the strategy of acquisition for R&D products in quality. Third, KRM needs to be the hub of humanities and social assets and social network platform for researchers. Forth, KRM needs to develop education service for lay users as well as research services for professional researchers.

키워드: 기초학문자료센터,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 연구정보서비스, 연구 성과물

Korean Research Memory, Humanities and Social Assets, One-stop Portal Servic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D products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정책연구-2017-57의 수행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basicwindy@naver.com) (교신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woojung2243@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8년 2월 12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3월 8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3월 1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73-97,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1.07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총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2017년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문학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상승과 함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고력, 통찰력, 문제해결능력 등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이루기 위해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 인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의 대중화,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 구축 등의 전략을 세웠다.

지금까지 인문학 진흥을 위해 정부는 학문후속세대 육성, 기초연구 확대 등 인문학 진흥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화를 위한 노력과 전략 연구 지원 등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는 인문학분야 지원예산이 2007년 1,129억원에서 2016년 1,930억원으로 70.9% 상승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외부의 인문학에 대한 위상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부에서의 인문학의 위상은 낮아져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기초학문 기반이 위협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인문학의 사회적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교육부 2017).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 내에서 인문학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기 위해서는 인문학 연구를 위

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인문학에 관한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 융복합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관련된 정보 자원에 수집 및 통합적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이하 NRF)의 전신인 한국학술진흥재단(Korea Research Foundation, 이하 KRF)은 인문사회(예체능 포함)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 2005년 기초학문자료센터 설립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년 12월부터 7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6년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심원식, 안혜연, 변제연 2015). 하지만 현재 기초학문자료센터는 한국연구재단 소관 인문사회분야 사업의 연구 성과만을 연구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인문사회 전체 자료(타 기관, 자치단체 포함)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초학문자료센터는 단순히 인문사회분야 사업의 연구 성과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종합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교육부의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에 맞추어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자산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초학문자료센터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초학문자료센터 내부의 환경적 요인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기초학문자료센터를 둘러싼 외부적 요인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초학문자료센터가 나아가야 할 전략을 수립하였다. 셋째, 현재 운영 중인 기초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예비연구자 그룹인 대학원생(석·박사 재학 및 수료생)에게 홈페이지를 직접 사용하게 한 후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연구경력 10년 전후의 박사급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 및 자문을 통해 발전방안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용성 테스트에 대한 분석은 통계분석 도구인 SPSS 23.0을 사용하였다.

2. 기초학문자료센터 역할 및 기능

2.1 기초학문자료센터 개요

기초학문자료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를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연구 진행 중 발생한 다양한 중간산출물,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논문, 단행저작 등 연구 성과를 연구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학

술연구지원사업 성과정보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학문자료센터는 국가적 연구역량 강화와 국가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 성과물 관리 공유 확산체제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한 성과물 DB를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의 기초학문분야 통합자료센터 및 DB구축팀 별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구축된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확산을 위한 기반 체계 개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학술연구지원비를 통해 수행된 과제의 원자료를 수집하고, 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픈아카이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셀프아카이빙을 통한 개인 리퍼지토리를 제공하고 연구자간 동적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며, RSS(Rich Site Summary) 및 OAI DP(Open Archives Initiative Data Provider)를 통해 외부 학술연구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문학, 예술체육 분야 DB 구축을 담당하는 성균관대 사업단과 사회과학, 복합학, 생활과학 분야 DB 구축을 담당하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학문자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성과물은 2017년 11월 현재 인문학 분야 300,236건, 사회과학분야 391,818건 등 총 692,054건이다. 인문학분야 연구 성과물로는 단행본, 보고서, 논문, 고문서, 고도서, 녹음자료, 이미지, 동영상, 웹사이트, 기사자료, 조사자료, 원문콘텐츠 등이 있으며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인문학대중화를 위해 세계 인문학포럼, 인문학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문사회분야 토대연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다.

2.2 기초학문자료센터 SWOT 분석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토대로 기초연구자료센터의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기초학문자료센터의 모조적인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대표적 국가 학술재단이다. 따라서 기초학문자료센터는 타 기관에 비해 인력 및 예산이 일정하여,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 제공

되는 연구정보는 기본적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나오는 모든 자료에 대한 원문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문자료를 기반으로 오픈액세스 정책을 취하고 있어 연구정보에 관한 원스톱 포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상당수의 연구지원 기관의 경우 모기관의 문제로 인하여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기초학문자료센터의 경우 정부주도의 안정적인 모기관으로 인해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및 투자가 가능하다.

기초학문자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은 연구지원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중간보고, 연구결과 심사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자료의 질적 검증이 이루어진 자료가

S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포털 사이트와의 협력 통한 인지도 확산 및 홍보 ● 오픈액세스 기반 지적재산권 유연성 확보 ● 단행본 자료 공유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강화, 디지털화 		WO 전략
● ● 최신훈연구정보·연구성과·신뢰성 보장된 중심 포털 사이트	Strengths	Weaknesses	● ● 사이트 개편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강화와 자료접근성 강화
	기관 내부 요소		
	기관 외부 요소		
	Opportunities	Threats	
	SO 전략		
● 기관협약, 사이트 링크 등을 통한 공공/민간 사이트 혼재 자원의 연계 ● 단행본 위주 정보이용행태 및 지적재산권 문제의 정책적 해결 기반		● 비연구자료 확대하여 보유 자원 활용한 자체콘텐츠 개발 강화	
● 정부주도(한국연구재단) 안정적 운영 ● 방대한 연구정보 자료 보유 ● 오픈액세스 기반(원문보유) 연구정보 ● 지속 가능한 운영시스템 보유 ● 질적 검증이 완료된 자원 보유 ● 분야별 최신 연구동향 확인 가능		● 연구결과물에 한정된 연구정보 보유 ● 인문학 자료센터로서의 낮은 인지도 ● 시스템 이용 및 검색기능의 불편 ● 자원중심이 아닌 사업중심 사이트 구조	
● 인문학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대 ● 국가차원 인문학 포털 사이트 조성 의지 ● 포털 사이트 구축 시 잠재적 이용자 많음 ● 인문학 포털 사이트로서 중심입지 선정 ● 공공/민간 등에 분산되어 있는 인문학 정보 제공 서비스 한계		● 단행본 중심의 정보이용행태 ● 지적재산권의 문제로 인한 통합시스템 제공의 문제 ● 민간 포털 사이트의 인문학 관련 정보 점유 확산	

<그림 1> 기초학문자료센터 SWOT 분석

다. 따라서 타 기관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학술지원사업 신청 시 연구 지원 자료에 있어 독창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산출 결과물 또한 최신 연구동향이 반영된 정보자원이 생산된다. 따라서 신규 연구자의 경우 정보자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신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학문자료센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약점도 가지고 있는데, 보유 정보자원의 경우 연구 성과물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를 가져오므로 기초학문자료센터 자료 활용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연구 성과물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 상 정보자료의 주 이용층이 연구자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연구 성과물에 한정된 정보자원 제공만으로는 비연구자는 물론 연구자의 만족 또한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설립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기초학문자료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터페이스의 경우 기존 주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신규 이용자 및 일반 이용자의 접근 및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제공하는 정보자원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제공하는 정보자원이 자원중심이라기 보다는, 학술지원사업의 결과로 나오는 정보의 특성을 가진 사업 중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신규이용자 및 해당 연구와 관련이 적은 이용자들이 접근 시 진입장벽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기관 외부적 요소를 통한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인간은 소통의 동물이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한다. 따라서 소통에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인문학은 이런 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개인을 넘어 국민으로 확장되었고,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국가차원에서 인문학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다. 인문학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2016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문학 진흥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인문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조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인문학 원스톱 포털 사이트의 구축은 현재 연구 성과물의 정보제공에만 머물러 있는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정보자원 제공 범주에 대한 확장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이는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는 물론 관련 종사자, 일반이용자까지 잠재적 이용자를 실질적 이용자로 변모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이다. 현재 인문학 관련 자료는 각 기관에 따라 분산되어 있으며,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인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상승과 함께 대다수의 이용자들의 인문학 정보자원 통합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문학의 경우 자연과학과는 달리 연구 성과의 이용에 있어 최신의 자료보다는 적합한 자료의 이용을 정보이용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행본 중심의 정보이용 행태는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를 비롯하여 인문학 중심의 정보자원센터를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단행본 위주의 정보이용 행태는 지적재산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는 이용자 정보이용행태에 민감한 민간 포털 사이트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민간 기관의 인문학 관련 정보 점유 확산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 인문학 통합정보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3 SWOT 분석을 통한 요소별 전략 도출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의 요소별 전략 도출을 위해 SWOT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ST(강점-위협) 전략으로 첫째, 국가주도적 인문학 포털서비스의 제공은 정보자원에 대한 신뢰성의 측면에 있어 민간 포털 사이트와 차별화가 가능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의 측면 역시 민간 포털 사이트가 가질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민간 포털 사이트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대중적 정보서비스라는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인문학 포털 사이트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현재 기초학문자료센터는 수집된 연구 성과물을 오픈액세스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단행본 등의 연구결과물은 여전히 지적재산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인문학의 확산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연구자료 활용이라는 특정 부분에 있어 한정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유연

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문학 특유의 정보이용행태인 단행본 중심의 정보이용 문제는 신뢰성 및 전문성 평가를 거친 인문사회 자산 보유 기관과의 단행본 자료 공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단행본 저작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단행본 자료의 확충을 꾀할 수 있으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 SO(강점-기회) 전략으로, 첫째, 인문학 통합포털 사이트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국가 차원의 인문학 포털 사이트 구축에 대한 의지는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자원 보유와 함께 국가 주도 기관으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으로 원스톱 포털 사이트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기초학문자료센터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정보와 이를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 그리고 원문중심의 원스톱 정보 제공은 기초학문자료센터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강점이다. 이를 중심으로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문학자료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연구자를 넘어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이용자까지 포섭함으로써 기초학문자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 연구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WO(약점-기회) 전략으로 첫째, 현재 학술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를 중심 정

보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국가적 차원의 인문학 포털 사이트로의 개편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이는 인문학 자료센터로서의 낮은 인지도 역시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보유 자원을 활용한 자체 콘텐츠 개발 강화를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비연구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사업 중심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및 검색 기능은 이용자의 접근성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사업중심이 아닌 자원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 WT(약점-위기) 전략으로, 첫째, 인문학의 관심과 함께 민간 포털 사이트의 인문학 정보자원에 대한 점유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업성에 기반한 민간 포털의 경우 타 기관과의 연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자료 링크서비스 등을 통하여 공공/민간 통합 정보지원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둘째, 단행본 중심의 정보이용행태는 국가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지속적인 단행본 지원 사업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문제 역시 다양한 정책적 해결 방안이 요구되므로 국가적 관심이 정책으로 표출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3. 사용성 테스트 및 전문가 자문

3.1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정보

현행 기초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주 이용자 계층 중 하나인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계열 대학원생(석사과정, 박사과정(수료포함))을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석·박사과정생의 경우 연구에 대한 이해가 일반이용자 보다 높음을 감안하여 사용성 테스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방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를 실제로 이용해보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용성 테스트 문항 구성은 제공되는 자원 유형별 유용성을 점검하고 검색 기능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중수 등(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연구자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표 1〉 참조).

대학원생 사용성 테스트는 총 응답자 93명 중 응답이 불성실한 3명을 제외한 9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경력 10년 전후의 교수 및 연구자, 유관기관 종사자 등 8명에게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사용성 테스트 참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25명(27.8%), 여성이 65명(72.2%)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는 20대가 49명(54.4%)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0명(22.2%), 30대가 17명(18.9%)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경우 사회과학 분야가 54명(60.0%), 인문학 분야가 32명(35.6%)으로

〈표 1〉 사용성 테스트 문항 구성

대항목	소항목	비고	문항유형
이용자	타깃 이용자 인식	복수응답 가능	공통
	기초학문자료센터 인지 여부	-	공통
	기초학문자료센터 이용 횟수	-	사용성 테스트
자원평가	연구 성과물 자료 유용성	• 자원유형: 단행본, 보고서, 논문, 조사자료, 고문서, 고도서, 이미지, 동영상, 녹음자료, 웹사이트, 기사자료, 낱장자료, 원문콘텐츠	공통
	인문학대중화 자료 유용성	• 자원유형: 동영상자료, 사진자료, 문서자료, 성과 요약 포스터	공통
	토대연구DB 자료 유용성	• 자원유형: 자료학 DB, 사전학 DB, 총서학 DB	공통
	추가 필요 연구자원	자유기술형	사용성 테스트
사이트 서비스	검색 편리성	• 세부내용: 검색 속도, 검색 정확성, 검색 재현율, 탐색 확장기능	공통
	브라우저 용이성	• 인터페이스 직관성, 주제별분류체계의 적합성	공통
	불편·추가 필요 서비스	자유기술형	사용성 테스트
포털 사이트 발전에 대한 의견	포털 사이트 발전에 대한 의견	자유기술형	공통
종합평가	현행 기초학문자료센터 이용의사	이용의사에 따른 자유기술형	사용성 테스트
	개선 후 인문사회 원스톱 포털 사이트 이용의사	이용의사에 따른 자유기술형	공통

〈표 2〉 사용성 테스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
성별	남성	25	27.8	90(100)
	여성	65	72.2	
연령대	20대(20-29세)	49	54.4	90(100)
	30대(30-39세)	17	18.9	
	40대(40-49세)	20	22.2	
	50대 이상	4	4.4	
전공	인문학	32	35.6	90(100)
	사회과학	54	60.0	
	예술체육	4	4.4	

응답하였다. 면담을 실시한 교수 및 연구자, 유관기관 종사자는 인문학(국어국문학, 철학) 분야의 전문가 3인, 사회과학(사회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분야 4인, 복합학(문화콘텐츠학) 분야 1인으로 구성하였다.

3.2 분석 결과

3.2.1 기초학문자료센터 인식 평가

사용성 테스트에 임하기 전 기초학문자료센터 사이트에 대한 인식 및 이용빈도는 〈표 3〉과

〈표 3〉 사이트 인지여부 및 이용빈도 빈도분석(공통)

사이트 인지 여부	이용자	이용빈도		빈도(%)
		0회	4(10.8)	
알고 있었음	대학원생	1~2회	12(32.4)	37(41.1)
		3회 이상	21(56.8)	
		전문가		
모르고 있었음	대학원생			53(58.9)
	전문가			3(37.5)

같다. 사용성 테스트에 임한 대학원생 90명 중 53명(58.9%)은 사용성 테스트 전 기초학문자료센터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으며, 전문가의 경우 8명 중 3명(37.5%)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초학문자료센터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기초학문자료센터의 타깃 이용자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4〉와 같다. 설문결과 대학원생과 전문가 모두 타깃 이용층을 박사취득 이상의 전문 연구자와 학문후속세대(학부생/대학원생)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사서나 연구원, 행정직 등 연구에 도움을 주는 사람 역시 개별적인 타깃 이용자로 보았다. 이는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주 이용층인 전문 연구자와 학문후속세대를 넘어 향후 원스톱 인문포털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핵심 타깃 이용

자층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이용자 범위의 확장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2.2 기초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 사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초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원 자체의 유용성에 대하여 리커드 7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유용성 평가결과 대학원생의 경우 4.537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유용성을 보였으며, 전문가의 경우 3.881점으로 유용성이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대학원생의 경우 토대연구 DB(4.889)에 대한 유용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전문가의 경우 인문학대중화 사업 관련 자료가 4.094로 가장

〈표 4〉 타깃 이용자에 대한 인식 분석(복수응답)

주 이용자	빈도(%)	
	대학원생	전문가
박사취득 이상 전문 연구자	69(45.7)	8(53.3)
학문후속세대(학부생/대학원생)	70(46.4)	7(46.7)
일반 시민(연구자 제외)	8(5.3)	0(0)
기타	4(2.6)	0(0)
합계	151(100)	15(100)

〈표 5〉 기초학문자료센터 보유 자원 유용성 평가

사업 분류	자원유형분류	대학원			전문가		
		인원	평균	사업별	응답	평균	사업별
연구 성과물	단행본	90	4.622	4.446	8	4.125	3.798
	보고서	90	5.400		8	4.750	
	논문	90	5.500		8	5.125	
	조사자료	90	5.100		8	4.750	
	고문서	90	3.644		8	3.250	
	고도서	90	3.556		8	3.375	
	이미지	90	3.978		8	3.250	
	동영상	90	4.300		8	3.000	
	녹음자료	90	4.022		8	3.125	
	웹사이트	90	4.378		8	3.500	
	기사자료	85	4.235		8	3.625	
	날장자료	90	4.156		8	3.750	
원문콘텐츠	90	4.911	8	3.750			
인문학 대중화	동영상자료 (석학인문강좌, 포럼 등)	90	4.967	4.567	8	4.250	4.094
	사진자료 (포럼 개최 사진자료)	90	4.567		8	3.875	
	문서자료 (포럼 발표집)	90	4.989		8	4.125	
	성과요약 포스터	82	3.744		8	4.125	
토대 연구 DB	자료학 DB	90	5.022	4.889	8	4.125	3.958
	사전학 DB	90	4.822		8	4.125	
	총서학 DB	90	4.822		8	3.625	
평균		4.537			3.881		

높았다. 세부자원유형에 대한 평가는 대학원생의 경우 논문(5.500), 보고서(5.400), 조사자료(5.100) 등은 높았으며, 고문서(3.644), 고도서(3.556), 성과요약 포스터(3.744), 이미지(3.978) 등은 유용성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논문(5.125), 보고서(4.750), 조사자료(4.750)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용성을 보였다. 설문결과를 보면,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역점을 기울였던 논문 및 보고서에 있어서는 전문가, 대학원생 모두 유용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전문가는 기초학문자료센터

자료의 상당수에 대한 유용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서비스 평가결과는 〈표 6〉과 같다. 대학원생의 경우가 전문가보다 약간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보통(4점) 정도의 평가를 나타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주제별분류체계의 적합성 측면에서 대학원생(4.767), 전문가(4.500) 모두 타항목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학원생은 검색 속도(4.522), 검색 정확성(4.500)에서도

〈표 6〉 기초학문자료센터 사이트 서비스 평가

사업 분류	현황	대학원			전문가		
		인원	평균	사업별	응답	평균	사업별
검색 편리성	검색 속도	90	4.522	4.311	8	4.120	3.938
	검색 정확성	90	4.500		8	3.880	
	검색 재현율	90	4.222		8	4.000	
	탐색 확장기능	90	4.078		8	3.750	
브라우저 용이성	인터페이스 직관성	90	3.844	4.323	8	3.500	3.955
	주제별 분류체계의 적합성	90	4.767		8	4.500	
평균		4.322			3.958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인터페이스의 직관성의 경우 대학원생(3.844)과 전문가(3.500) 모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초학문자료센터 사용자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한 개방형 답변에서도 인터페이스 직관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분석 결과, 문제의 상당 부분은 사이트 인터페이스 및 검색 기능과 관련이 있었다. 글자 크기, 모바일 인터페이스, 산만한 느낌, 불필요한 바탕화면의 탭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검색 결과 관련하여 특정 유형 검색 후 다시 시도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분, 분류별 검색 시 유형 검색이 되지 않는 부분 등이 지적되었다. 검색 결과 측면에서는 정확률과 재현율에 있어 만족도가 낮았으며, 타 정보원을 통하여 접근하기 쉬운 자료가 많아 독창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검색 서비스에서도 기초적인 연관검색어나 결과 내 재검색, 필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비교우위를 점하기 힘들었다. 이를 종합하면 사이트 인터페이스 및 검색 기능에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2.3 기초학문자료센터 종합평가

현행 기초학문자료센터(개편 전)의 향후 이용 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학원생은 기초학문자료센터(개편 전)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6.7%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초학문자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질적인 요소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신 연구성과를 통해 최신의 연구동향 및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었다. 반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23.3%로, 주로 검색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을 이유로 들었다.

기초학문자료센터 보유 정보자원의 측면에서는 교양 자료와 연구 자료의 구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 또한 사이트 구조 및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이다. 즉, 자원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홈페이지의 구조적 불편함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기초학문자료센터를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로 개선할 경우 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의견(86.7%)이 이용하지 않겠다고(13.3%)는 의견보다 높았으며, 개선 전 재이용의사 보다 높았다. 이용의사를 표현한 이용자의 경우 자원의 확충에 관한 기대감과 자원의 다양성, 연계를 통한 기관 정보의 종합적 획득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인문학 강의 자료 등 전문자료보다는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자료에 대한 요구가 더 강조되었다. 반면 개선 후에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검색 시스템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사이트 자체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큰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여 차별화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전문가의 경우 8명 전체(100%)가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로 개선 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의 경우 크게 3가지 분야에서 기초학문자료센터의 가치를 꼽았다. 첫째, 자원의 방대함 및 유용성이다. 인문사회 분야 뿐 아니라 예술·체육 및 복합학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공공 자료(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성과물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등을 이용하기에 적절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이용자 확장으로 인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이다. 특히, 연구자 간 상호교류 및 연구자와 일반인 간의 교류도 가능해지는 허브 사이트로서 연구의 질과 활용도를 재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셋째,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제에 대한 확인은 최신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한 중요 요소이며, 공동연구 등 기존의 학문통섭적 시도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3.2.4 인문사회자산 포털 사이트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사이트로 역할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오프라인 분야 정보자원의 확충이다. 둘째, 이용자 범위의 확대를 통한 대외적

서비스의 제공이다. 셋째, 인터페이스 및 검색 기능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다. 넷째, 포털 사이트로서 자원에 대한 수집보다는 기존 기관과 연계의 필요성이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 측면에서는 연구 성과물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 대상의 주제서비스 강화, 주제별 인용지도 등 자원을 적합한 이용자에게 주제별로 분할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현행 사이트의 홍보부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사이트 개선 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및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향후 기초학문자료센터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정책과제(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책방향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제도적·서비스적 지원의 확대이다. 자료수집 분야에서는 실질적 정보자원 보유 연구소에 대한 지원과 민간 연구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또한 연구자 네트워크 확대 방안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서비스 측면으로는 연구자 중심의 자원 개편을 언급하였다. 둘째, 일반이용자 서비스 및 콘텐츠 확대의 측면이다. 전문연구자인 박사급 연구원, 대학원생 뿐 아니라 예비연구자인 학부생과 일반 대중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이용자 계층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자료 및 정책 등 자원의 서비스에 있어 분야를 특화하고, 특화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서비스 및 포털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홈페이지 및 인터페이스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는 사용성 테스트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내용으로, 현행 인터페이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3.2.5 시사점

기초학문자료센터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측면에서 전문 연구자(관련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일반이용자까지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기관의 타깃 이용자는 전문 연구자, 학문후속세대 혹은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이다. 하지만 자원의 유용성 및 추가 요구 자원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인문학대중화 사업 자료 및 인문학 강의 확충 등 일반 시민 대상의 자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따라서 핵심 이용자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되, 인문사회분야가 사회 전반적인 풍토로 정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연구자 육성을 통한 사이트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 대상의 자원 및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연구자 중심의 인문사회 원문 확충이다. 자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디지털 원문 제공 및 확장성에 관한 요구가 많았다. 인문사회와 관련된 통계자료나, 혹은 연구성과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요구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full-text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포털 서비스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현행 자원은 부족하며, 자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잠재적으로 전제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자(子)기관이라는 점에서 연구성과 자료를 제공하고, 학술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하

여 기관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만큼 자원에서도 필요한 기관과 충분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자원을 생산하는 주체이자 소비하는 주체로서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기초학문자료센터의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고, 가장 높은 유용성을 보인 연구 성과 자료는 해당 자료의 질적인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셋째, 기초학문자료센터 사이트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면 검색 시스템 및 사이트 전면 개편과 홍보의 필요성이다. 불만이 제기되는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사이트 검색 및 인터페이스의 불편함이었다. 검색 결과의 신뢰성, 검색 과정의 불편, 인터페이스의 복잡성 등 다양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전반적인 개편이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이미 충분한 양질의 자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사이트 개편과 함께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학문자료센터'라는 명칭이 인문사회 분야에 특화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지거나, 인문사회분야 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에 대한 개선 및 보유 자원을 특화시켜 홍보하는 방법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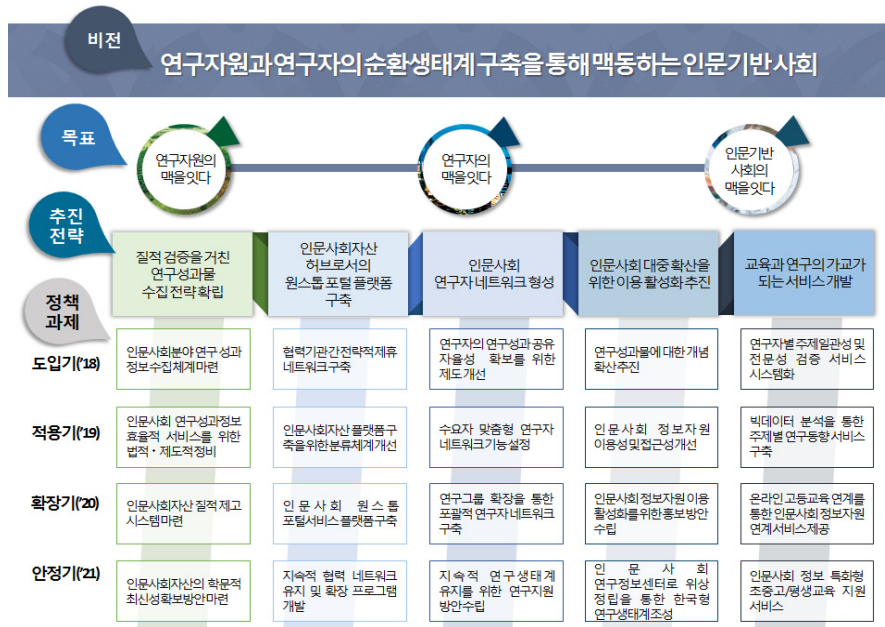
4. 인문사회자산 발전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구축

4.1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본 연구에서는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 자산에 대한 원스톱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자원과 연구자의 순환생태계 구축을 통해 맥동하는 인문기반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자산에 대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원의 통합적 제공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무한정보제공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원을 중심으로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인문기반 사회의 구축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기초학문자료센터의 3대 목표로 '연구자원의 맥을 잇다', '연구자의 맥을 잇다', '인문기반 사회의 맥을 잇다'로 설정하였다.

기초학문자료센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에 따른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질적 검증을 거친 연구 성과물 수집전략 확립', '인문사회 자산 허브로서의 원스톱 포털플랫폼 구축'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연구자에 대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인문기반 사회 구축을 위한 지속 전략으로는 '인문사회 대중 확산을 위한 이용활성화 추진', '교육과 연구의 가교가 되는 서비스 개발'을 설정하였다. 추진전략에 따라 2018년~2021년까지 총 4 단계에 걸쳐 단계적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각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2〉 기초학문자료센터 비전 및 추진전략

4.2 추진전략에 따른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과제

4.2.1 질적검증을 거친 연구 성과물 수집 전략 확립

본 연구에서는 질적으로 검증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수집 전략 확립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단계별로 제안하였으며, <표 7>과 같다.

첫째,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 자산 포털로서의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분야에 한정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포털 사이트로서 명확한 범주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인문사회분야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는 학술논문 등 최신의 연구결과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학술적 지식을 포섭할 수 있는 단행본 자료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는 학술지원사업을 통해 발주한 단행본 저술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원문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하여 제공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원스톱 포털서비스의 핵심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초학문자료센터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해당 연구 성과물은 계약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자

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완벽한 원스톱 포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자원의 대량생산과 함께 정보자원 속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보호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 포털 사이트로의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정보의 확장과 함께 찾아올 문제인 문헌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협력기관에 대한 평가 및 협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한 평가,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향후 인문사회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에 있어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질적 검증 시스템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문사회자산 특히 인문사회자산의 경우 연구자료 활용에 있어 논문과 연구자의 연구경력도 중요하지만 단행본의 중요성이 높음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인문사회자산의 경우 기존의 신뢰성 평가와 함께 단행본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의 활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지표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료에 대한 질적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

<표 7> 질적검증을 거친 연구 성과물 수집 전략 확립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구분	1단계(2018년)	2단계(2019년)	3단계(2020년)	4단계(2021년 이후)
정책과제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정보 수집 체계 마련	인문사회 연구성과정보 효율적 서비스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인문사회자산 질적 제고 시스템 마련	인문사회 정보자원의 학문적 최신성 확보방안 마련
세부추진과제	- 인문사회분야 수집자원에 대한 범주 설정 - 학술지원사업 연구 성과물인 단행본, 원문디지털 콘텐츠 제공	- 원스톱 포털서비스를 위한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 - 데이터 공개여부 및 접근 권한 설정	- 전문성, 신뢰성 검증체계 구축 - 인문사회 자원 활용도 지표화	- 정기적 정보자원 업데이트 및 경향성 분석을 통한 자료 수집 기준 마련 - 인문사회자산 활용지표에 따른 특화분야 확립

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인문사회자산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 최신성은 아니나 최근 연구경향성 등을 고려하면 최신성과 적절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정기적 업데이트가 아닌 정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연구자의 이용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최신 연구동향 등 연구경향성을 통해 인문사회자산의 수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인문사회자원 이용에 대한 활용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인문사회분야에서 확산 가치가 있는 특화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4.2.2 인문사회자산 허브로서의 원스톱 포털 플랫폼 구축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자산 허브로서 원스톱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는 <표 8>과 같다.

첫째, 인문사회 자산 원스톱 포털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도입기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가 있으며, 각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인문사회 자산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인문사회 자산에 대한 연계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정보자원의 확장을 위해서는 인문사회 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의 연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각 대학 연구소와의 직접적인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산되는 자료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연구소 및 민간 포털 사이트까지 범위를 확장한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70만건에 가까운 실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모기관의 연구 성과물의 기반이 되는 분류체계를 주제별, 유형별 등 향후 인문사회 분야 원스톱 포털서비스에서 적용가능한 분류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되는 메타필드의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협력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주제별·유형별 분류체계를 확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KRM Open-API 서비스의 경우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한 공유자원의 토대를 만든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Open-API서비스

<표 8> 인문사회자산 허브로서의 원스톱 포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구분	1단계(2018년)	2단계(2019년)	3단계(2020년)	4단계(2021년 이후)
정책 과제	협력기관 간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 구축	인문사회자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정비	인문사회 원스톱 포털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속적 협력네트워크 유지 및 확장 프로그램 개발
세부 추진 과제	- 공공기관 중심 인문사회자산 정보연계 네트워크 구축 - 대학 및 민간기관 인문사회자산 정보연계 확장 네트워크 구축	- 데이터의 귀납적 분석을 통한 주제별·유형별 분류체계 개선 - KRM Open-API 서비스 확대	- 기관 보유자원·기관외부 연계 자원 간 의미적 연결망 구축 - LOD 기반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사이트 시스템 구축	- 인문사회자산 보유 네트워크 기관 간 협약 지속 관리 시스템 구축 - 인문사회 정보자원 보유 신규 기관 발굴 및 연계자원 관리

상호 확대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자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문사회자산에 관한 모든 정보요구 및 접속을 기초학문자료센터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는 중간산출물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연구자료(원자료)를 중심으로 주제분석을 실시하여 의미분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의미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연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대학연구소 등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의미적 연결망 구축까지 확장한다면 최적의 원스톱 포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민간 포털 사이트 포함),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사이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정보는 한 개인이나 기업의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진 공유자산임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학문자료센터는 오픈데이터(Open Data)를 기본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보의 공유는 한 기관이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제공하는데는 한계를 가지므로 링크드데이

터(Linked Data) 개념을 통해 네트워크 된 공유데이터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시스템의 핵심은 LOD(Linked Open Data)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자료를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정보서비스를 위한 기본은 중요자원의 보유에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자산 보유 네트워크 기관 간 협약의 지속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여덟째, 인문사회자산 협력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기존 협력 네트워크의 관리와 함께 신규 정보보유 기관의 발굴과 자원연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기관에 대한 점검 및 신규 기관에 대한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문사회 자산 정보제공 포털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4.2.3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부추진과제는 <표 9>와 같다(김영기, 정종근, 이수상 2007; 홍재현 2008; 최윤희, 김성원 2012).

첫째, 연구자 주도의 연구성과 구축이 기초학

<표 9>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구분	1단계(2018년)	2단계(2019년)	3단계(2020년)	4단계(2021년 이후)
정책 과제	연구자의 연구성과 공유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수요자 맞춤형 연구자 네트워크 기능 설정	연구그룹 확장을 통한 포괄적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 연구생태계 유지를 위한 연구 지원 방안 수립
세부 추진 과제	- 연구자 생산 연구 성과물(논문)의 지적재산권 문제 검토 - KCI 자원 대상 인용정보 연계 의무화	- 한국연구자정보(KRI) 등록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대상 수요 조사 - 연구자 네트워크 파일럿 사이트 시범운영	- KRI 계정과 연계하여 접근제한 없는 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 연구자 소속 및 직급에 따른 차별이 없는 의견 개진을 위한 사이트 운영방안 구축	- 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료활용 연구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 - 대학 내·외 연구생태계 확장 위한 협력지원사업

문자료센터의 기초 중 하나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자원 공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 성과물의 핵심일 수 있는 논문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KCI와의 연계서비스를 통해 연구자들의 자원 공유를 위한 우선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학문자료센터 내에서의 제한적 논문 공유 허용을 진행하며, 법적, 제도적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윈스톱이라는 정책방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자 네트워크는 곧 연구경향 및 학과와도 간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연구를 하는 주체의 집합과 그 전공분야에 따라서 연구분야가 나뉘기 때문이다. 현재 KCI와의 매핑 폭을 보다 확장하여 인용정보 연계를 의무화하고, 이를 논문 단위로 구성하며, 현행 연구성과 중심의 사이트를 연구자 중심의 사이트로 개편함으로써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기능적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 KCI 제공 논문의 경우 학회를 통해 최종 출판되는 자료와의 상이성에 대한 문제의 해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공계열의 요구와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요구는 많은 면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인문사회분야는 사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사이트의 논쟁과 담론 그 자체가 학문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학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이트의 운영이 훨씬 복잡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는 현재 사이트의 주요 이용자인 KRI에 등록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사이트 참여 여부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근본적으로 연구자 네트워크의 속성은 연구자들 간의 자료 공유이다. 이런 자료 공유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게시판 방식(BRIC),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Researchgate)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인문사회분야에 효율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파일럿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이용 양태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KRI 계정은 연구자라면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다. KRM과의 계정을 이원화할 필요 없이, 인증절차를 밟아 KRM에서 해당 계정을 연계할 수 있다면 현재 KRM 서비스에 있어서 원자료 DB구축 등의 접근제한 측면이 완화될 수 있다. 여섯째, 연구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 주제에 따른 기탄없는 논의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연구자 네트워크는 대학과 같은 위계를 전제한 도제식 교육기관이 아니라 같은 주제분야를 공유하는 아고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견 개진이나 활동에 있어서 연구자의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일곱째, 연구자 네트워크는 연구 활성화를 독려하는 기능도 있지만, 기초학문자료센터 뿐만 아니라 모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서비스 대상이자 모니터링 기관으로서 복합적인 역할을 지닌다. 공식적 차원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향후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자료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발전방안 구축에 활용함으로써 기초학문자료센터는 실효성있는 정책사업 실현을, 연구자는 참여적 사업설계를 통한 연구생태계의 존속을 지향할 수 있다. 여덟째,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특성은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 바깥의 현장 박사인력이나 민간 연구소 등 사회 속의 연구자들 또한 존재한다. 대학 내·외의 연구생태계가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다음 단계로서 대학

내·외 연구자들의 상호협력을 주제로 한 제도적·사업적 지원방안은 연구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연구생태계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4.2.4 인문사회 대중 확산을 위한 이용 활성화 추진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의 대중화를 위한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부추진과제는 <표 10>과 같다.

첫째, 논문이나 저역서 등 일부 연구 성과물 뿐 아니라 결과보고서, 중간산출물 등을 통한 응용된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례 공모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사례 공모를 통해 실제 이용을 독려하고,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 방안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는 B연구자의 중간산출물이 A연구자의 원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복합연구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초학문자료센터의 명칭은 기능·

설명적이고, 공식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이용자들의 유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또한 향후 원스톱 포털 서비스로의 확장을 감안한 명칭의 개선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다 의미 지향적이고, 친근한 단어표현을 사용하여 명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문사회 원스톱 포털 사이트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접근계층을 최소화한 UI가 필요하다. 사업 중심으로 나뉜 현재의 UI 구조에서 벗어나 이용자 입장에서 고려된 UI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용자가 유관기관의 자료를 복사/대출/열람할 수 있는 신청, 승인 시스템 등을 갖추으로써 기관 간 자원공유, 이용자 대상 정보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네이버 전문정보나 지식백과 등 접근성이 좋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정보들은 연계를 바탕으로 한다.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자료는 검증된 사업을 통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민간 포털 사이트들에 비해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다. 현재도 KRM Open API를 통해 몇몇 기관과 연계하고 있으나, 토대연구를 통해 구축된 DB를 네이버 지식백과와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상당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

<표 10> 인문사회 대중 확산을 위한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의 세부추진과제

구분	1단계(2018년)	2단계(2019년)	3단계(2020년)	4단계(2021년 이후)
정책과제	연구 성과물에 대한 개념 확산 추진	인문사회 정보자원 이용성 및 접근성 개선	인문사회 정보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수립	인문사회 연구정보센터로 위상정립을 통한 한국형 연구생태계 조성
세부추진과제	- KRM 연구 성과물(논문, 결과보고서) 활용 사례 공모 - 연구 성과물(중간산출물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 지원	- KRM 명칭 개선 - KRM 사용자 테스트 및 UI 개선 - 복사·대출·열람서비스 등 오프라인 자료 제공 서비스 방안 설계	- 민간 포털 사이트와의 자원 상호제공 협력 방안 수립 - SNS 활용 홍보 방안 수립	- 석학인문강좌 확대를 통한 국내 석학 연구자 소개 - 한국 인문사회학의 대외적 성과홍보

곁째, RISS의 사례와 같이,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수단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은 SNS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KRM 이용 이벤트 등을 개최함으로써 연구자 이외의 대중에 대한 홍보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덟째, 인문사회 정보센터로서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인문사회계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유수의 인문사회 석학을 브랜드화시켜 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는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지속력이 짧은 반면, 사람의 이름을 통해 지속되는 브랜드가치는 영속적이다. 아홉째, 연구자에 대한 관심이 학문분야에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인문사회학이 성취한 성과가 그러한 연구자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등의 수단으로 충분히 강화되었다.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는 이러한 분야 중 인문사회

분야의 성과를 해당 연구 성과물 및 연구과제에 링크시키는 방식 등 연구 성과물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책을 짜야 한다. 기초학문자료센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한국형 연구생태계의 구축의 시발점이 될 필요가 있다.

4.2.5 교육과 연구의 가교가 되는 서비스 개발

기초학문자료센터는 교육과 연구의 가교가 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부추진과제는 <표 11>과 같다.

첫째, 개별 연구자별로 성과물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연구자 논문의 주제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정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연구자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한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간접정보가 된다. 또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없이도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트 이용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둘째, 인문사회는 물리법칙이나 과학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인간

<표 11> 교육과 연구의 가교가 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세부추진전략

구분	1단계(2018년)	2단계(2019년)	3단계(2020년)	4단계(2021년 이후)
정책 과제	연구자별 주제일관성 및 전문성 검정 서비스 시스템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제별 연구동향 서비스 구축	온라인 고등교육 연계를 통한 인문사회 정보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인문사회 정보 특화형 초중고/평생교육 지원 서비스
세부 추진 과제	- 개별 연구자 성과물 키워드분석을 통한 주제일관성 검정 서비스 구축 - 연구성과 평가제도 확립을 통한 연구자 전문성 검정 서비스 구축	- 선행과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신 연구동향 시각화 - 키워드 포함 연구 성과물의 연도별 선정·발표·검색 빈도수 그래프 제공	- 교수자 강의 관련 연구성과 연계 제공 - 강의관련 최신 연구성과 연계 제공 - K-MOOC 중 생산된 과제(보고서)나 수업자료 중 우수 자료의 수집 및 제공	- 인문사회교육 교사용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료제공서비스 - 최신 연구동향 반영한 인문사회교육 자료 제작 연구 지원 - 학생 연구자 소논문 작성 지원 등 예비연구자 육성 지원 사업

개인과 집합 그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둔다. 연계와 통섭이 시대의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전문성이 가지는 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연구성과에 대해 인용 및 활용지수를 반영한 지속적 평가제도의 확립은, 해당 연구자가 해당 주제분야에 대해 질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는 연구를 했는지를 후속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선정과제의 제목 및 초록의 단어를 활용한 내용분석 및 의미분석을 활용하여 각 분야별로 유의한 키워드를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키워드를 시각화시켜 각 주제별 연구 동향을 제공한다. 넷째,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연구 성과물이 각 연도별로 선정·발표되거나 검색된 횟수를 체크하여 시각화하여 제공하면, 해당 연구키워드의 경향성 및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K-MOOC는 다양한 대학의 수업을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제를 제출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온라인 고등교육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실제 수업을 선택하고, 수강하는 과정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에 관한 연구성과를 함께 제공한다면 이용자의 강의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고등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의 획득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 연구성과들은 그 자체로 풍부한 수업자료가 되므로, 강의자에게는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할 수 있으며 수강자에게는 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는 자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유입을 도모할 수 있다. 일곱째, K-MOOC는 실제 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과정에서 과제물 등 많은 자료들이 생산된다. 또한 수업을 수강하는 계층도 특정 대

학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수급, 혹은 타과 석사 등 다양한 고등교육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의 대학교보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에서 과제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 여덟째, 자유학기제 등 학부모와 교사의 기획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인문사회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원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보다 쉽게 인문사회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교육에 관한 각 분야별 강의안이나 소개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인문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원천 자원 및 인문사회 연구의 대중적 친근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아홉째, 인문사회는 누적되는 학문 특성상 교육자원에서 논의가 다소 점진적인 경우가 많다. 교사용 콘텐츠 개발과 결부지어, 인문사회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자료 제작 연구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기초학문자료센터를 통해 공유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이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연구성과로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인문사회교육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성과의 확산과 재생산이라는 점에서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존재당위를 증명하는 것이다. 열째, 학문후속세대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서 예비연구자를 육성하는 과정을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다. 학생 연구자들의 소논문 작성 공모와,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학문후속세대와 학생 연구자들 간의 1:1 매칭 등 실제 연구생태계를 학생들이 체험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미래 연구자 육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인간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고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여 답하고자 하는 인문학(humanities)은 그 분야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이언주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인문학에 대한 정보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원스톱 포털 서비스라는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의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소속 기관으로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연구 성과물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서 인문사회 관련 정보자료에 대한 통합 포털 사이트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자산에 대한 원스톱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자원과 연구자의 순환생태계 구축을 통해 맥동하는 인문기반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사이트로 확장·개편하기 위한 발전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설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학문자료센터의 내·외부적 환경을 통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석·박사과정생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기초학문자료센터의 3대 목표로 '연구자원의 맥을 잇다', '연구자의 맥을 잇다', '인문기반 사회의 맥을 잇다'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질적 검증을 거친 연구 성과물 수집전략 확립', '인문사회자산 허브로서의 원스톱 포털 플랫폼 구축'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연구자에 대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인문기반 사회 구축을 위한 지속 전략으로는 '인문사회 대중 확산을 위한 이용활성화 추진', '교육과 연구의 가교가 되는 서비스 개발'을 설정하였다. 추진전략은 2018년~2021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단계적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각 정책과제별로 총 4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인문자산에 대한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첫째, 연구성과 자료 제공 확장의 측면에서 자원의 통합적 제공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무한정보제공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포털사이트의 개념 상 정보의 직접적 보유보다는 협력을 통한 정보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질적 검증을 거친 연구 성과물 수집 전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KRM은 단순 정보자원의 제공의 측면을 넘어서 인문사회자산 허브 및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넷째, 현재 연구자 위주의 전문 연구 서비스의 틀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인문사회분야 정보획득에 있어 일반인 이용자들을 위한 교육의 측면까지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기초학문자료센터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 방안과 세부추진과제를 계획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수정·보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운정, 강주선, 김종기, 고일상. 2014. 지식공유활동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자발적 지식제공의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43(6): 2175-2199.
- 교육부. 2017.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17~2021)』. 세종: 교육부.
- 김규환. 2016.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265-288.
- 김영기, 정종근, 이수상. 2007. 주제기반 온라인 학술 커뮤니티의 구축 방향. 『정보관리학회지』, 24(4): 6-31.
- 김영재, 이주호, 안정석, 박연옥. 2015. 한국 박사인력 실태 분석에 관한 소고. 『취업진로연구』, 5(3): 59-81.
- 박기성, 김용민. 2013.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개인 연구지원의 효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3): 93-121.
- 심원식, 안혜연, 변제연. 2015. 인문학 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성 증진을 위한 전략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155-183.
- 양현미 외. 2012. 『국립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오현석, 김정인. 2012.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연구자의 연구활동 및 환경인식 차이 분석. 『한국교육』, 39(1): 209-234.
- 윤희윤 외. 2015.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세종: 국립세종도서관.
- 이언주. 2016.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 이재완, 박은형. 2017. 원스톱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4): 215-239.
- 전중수 외. 2007. 『국가지식포털 대국민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행정안전부.
- 차민철, 이상훈. 2015. 학문·연구 자료의 형상화와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영상예술연구』, 27: 207-23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국립현대미술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 홍재현. 2008.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431-463.

[웹사이트]

Researchgate. [cited 2017.11.30]. <www.researchgate.net>.

국립중앙도서관 Korean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 [cited 2017.11.29].

<<http://copyright.oak.go.kr/>>.

기초학문자료센터. [cited 2017.11.29]. <<http://www.krm.or.kr>>.
생물학연구정보센터. [cited 2017.11.29]. <<http://www.ibric.org/>>.
연구성과정보시스템 성과마루. [cited 2017.11.29]. <<http://rnd.nrf.re.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cited 2017.10.18].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성과전시관. [cited 2017.11.29]. <<http://rnd.nrf.re.kr/online/index.jsp>>.

[관련법령 및 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40호, 2016.2.3. 제정].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 Min-Cheol and Sang-Hun Lee. 2015. "Visualization of the Academic Research Data & Evolution in Academic Communications." *Association of Image & Film Studies*, 27: 207-231.
- Hong, Jae-Hyun. 2008. "A Study on Copyright Possession for Open Access and Archiving of Scholarly Journal Paper Registered in Korean Research Found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431-463.
- Jeon, Jong-Su et al. 2007. *A Study of Improvement plan of national service in Korea Knowledge Portal*. Seoul: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Kim, Gyuh-Wan. 2016. "A Study on A Model Sample for Guidance System for Copyright of Domestic Journals and Open Access Poli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265-288.
- Kim, Young-Jae, Ju-Ho Lee, Jung-Suk Ahn, and Yeon-Ok Park. 2015. "A Study on Analysis of Doctor Human Capital Statue in Korea."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5(3): 59-81.
- Kim, Young-Ki, Jong-Geun Jeong, and Soo-Sang Lee. 2007. "A Study on Operational Model of Subject-Based Online Community for Open Access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4(4): 6-31.
- Ko, Yoon-Jung, Ju-Seon Kang, Jong-Gi Kim, and Il-Sang Ko. 2014. "A Study on the Impact Factors of Knowledge Sharing Behavior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Willingness of Knowledge Contributing." *Korean Management Review*, 43(6): 2175-2199.

-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13. *A Study of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Seoul: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 Lee, Eon-Ju.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Moral Education Using Humanities*. Ph D. diss. University of Seoul.
- Lee, Jae-Wan and Eun-Hyung Park. 2017. "A Study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One-stop Service"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7(4): 215-239.
- Ministry of Education. 2017. *Five-Year Plan for Humanities Promotion (2017~2021)*.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Oh, Hun-Seck and Jung-In Kim. 2012.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Scientists' and Social Scientists' Research Activities and Perceived Research Environm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9(1): 209-234.
- Park, Ki-Seong and Young-Min Kim. 2013.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Research Support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3(3): 93-121.
- Shim, Won-Sik, Hye-Yeon Ahn, and Jea-Yeon Byun. 2015.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Research Data in the Humanit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155-183.
- Yang, Hyeon Mi et al. 2012. *National Museum of Korea Strategic Plan 2012-2016*.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 Yun, Hui-Yun et al. 2015. *A Study of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Sejong: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